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국립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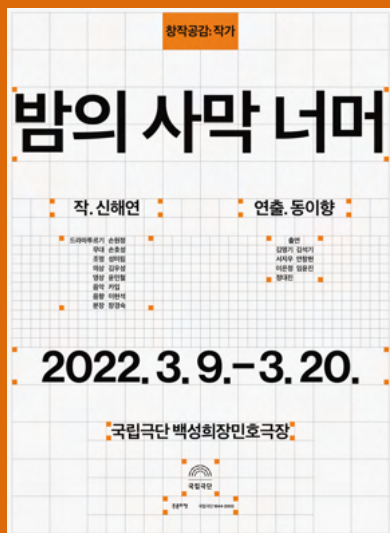
❖ 본 공연은 (재)국립극단 '창작공간: 작가'를 통해 개발된 창작 희곡으로
2021년 8월 27일 낭독회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재)국립극단 제작으로 2022년 3월 9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2021 [창작공간: 작가] 작품개발단계 연혁

YY	MM	DD	
2021	01-03		공모 및 작가 선정
		04 09	오리엔테이션
	04-01		정기모임: 스터디 및 워크숍
			스터디 포스트 휴머니즘
			장애 담론을 경유하여
			동물권
			동시대성, 동시대인
			워크숍 움직임(이윤정/안무가)
			텍스트의 시각화(김형연/조명·공간 디자이너)
			고정관념 교정연습(권김현영/여성학자)
			최신 희곡 경향(이단비/번역가·드라마투르그)
2022	03-05		인터뷰 기법(은유/작가)
			음악과 연극(장영규/음악감독)
	08 27-29		1차 낭독회 @JCC아트센터 콘서트홀
	09-11		의견수렴 및 퇴고, 2022년 본 공연 연출가 합류
	12 14-18		2차 낭독회 @국립극단 소극장 판
	12		의견수렴과정

2022	03-05	본 공연 @백성희장민호극장 희곡집 출간
------	-------	--------------------------

국립극단 밤의 사막 너머
작 신혜연
연출 동이향



02 운영위원의 글

04 줄거리

06 작가의 글

07 연출의 글

08 출연진

10 스태프 프로필

12 작품이해돕기 1
우울의 가능성들

14 작품이해돕기 2
제작일지

16 연습 스케치

18 만드는 사람들

함께, 반려(伴侶)를 질문해온 시간들¹⁾

[창작공감: 작가] 운영위원 전영지(드라마투르그)

신해연, 김도영, 배해를 작가의 신작을 선보입니다. 작가들의 이름만으로 소개가 충분하다고 여길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 이번 신작 소개에는 약간의 설명이 덧붙여야 마땅합니다. 이 작품들에는 세 명의 극작가가 20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국립극단과 함께해온 시간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 편의 작품이 유사한 주제를 다루거나 비슷한 결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대성’을 모토로 삼았지만, ‘국립극단이 생각하는 특정 동시대성’을 작가들을 통해 발화하고자 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작공감: 작가]는 여타의 프로그램들과 달리 주제를 특정 화두로 제한하기보다는 각각의 작가들이 ‘동시대와 공유하고 싶은 담론들’로 열어둠으로써 개별 극작가들이 바라 보는 ‘동시대성’은 무엇인지 폭넓게 청취코자 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아감벤의 글이 시사하듯, ‘지금’을 이야기한다고 하여 모든 이야기가 ‘동시대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아니며, 진정한 동시대인의 문제는 시간을 가필(加筆)하고 변형하며 당대의 ‘내밀한 어둠’을 더듬어 살필 때야 비로소 다가설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²⁾ 작가들의 탐험은 결국, 지금 현재 다루어지기를 갈망하지만 아직 언어를 갖지 못한 존재와 화두에 대한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스튜디오에 함께 읽었던 도나 해러웨이의 「반려종 선언」이 떠오릅니다. 해러웨이는 그 글에서 “우리는 하나가 아니며, 함께 살아감으로써 존재”함으로 “누가 있으며 누가 생겨나고 있는지 묻는 것이 의무”라고 말합니다.³⁾ 우리 안에는 누가 있었고, 누가 생겨났으며, 또 누가 찾아올까요? 우리가 함께 한 1년여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올 그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왔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으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당신-관객들이 이 문제를 직면하도록 질문할 권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⁴⁾

1) 이 글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던 ‘2차 낭독회’ 프로그램에 게재된 글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전문은 국립극단 홈페이지(www.ntck.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세 명의 참여 작가들이 비인간 동물을 통해 펼쳐내는 동시대적 사유의 지평에 대해서는 ‘국립극단 [창작공간: 작가] 희곡선’에 수록된 운영위원의 글, 「인간과 비인간, 나와 타자의 공존이 ‘환유’하는 세계들」에 짧게 적었습니다.

2) 조르주 아감벤, 양창렬 옮김, 『동시대인이란 무엇인가』,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난장, 2010, 69-88쪽.

3)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옮김, 「반려종 선언」,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178쪽.

4) 앤 보가트, 이곤 옮김, 『그런 다음, 당신은 행동한다』, 비즈앤비즈, 2019, 11쪽.

어느새 우울도 보이지 않는다.
사막 한가운데서, 완전히 혼자가 됐다.

“너는 그 사막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Now, depression is nowhere to be seen.
I've become utterly alone in the middle of the desert.

“I hope you get reborn in that desert.”

여자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누군가의 부고를 알리는 편지.

그러나 도대체 누가 죽었던 말인가? 여자는 오래된 이름 하나를 떠올린다.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지금은 얼굴조차 희미한 나의 여자친구 '보리'.
어쩌면 이걸 보리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가 아닐까?

A woman received a letter carrying the news of someone's death.

But who in the world is dead? She recalls a long-forgotten name.
Bo-ri was her erstwhile best friend, but now she can hardly remember her face.
Perhaps the letter is about Bori's death.

여자는 뒤늦게 보리를 찾아 나서고, 그 길에서 은퇴한 바둑 기사를,
다단계 회사 리더를, 자신을 만나게 된다.

한편 보리가 머물던 방에는 이제 또 다른 보리가 살고 있다. 바로 원숭이 보리.
인간 보리의 손에 길러진 원숭이 보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던 '방'을 떠나 밖으로 향한다.
서로 다른 시간대, 다른 길 위에 선 이들.

그리고 여자는 걷고 걸어 무수한 도시의 방들을 지나 사막에 다다른다.

The woman belatedly sets out in search of Bori. Along the way,
she encounters a retired 'Go' game player, a leader of a pyramid company, and herself.

Meanwhile, Bori's old room is now occupied by another Bori. A monkey named Bori.
Raised by Bori the human, Bori the monkey leaves the room for the very first time
and heads outside. There are those on different paths, at different times.

Then the woman continues to walk through countless rooms and arrives at the desert.





작 신해연

문득 자신의 슬픔을 알아차린 여자가 받은 부고 편지로부터 이 여정은 시작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부고 편지, 그리고 떠오르는 오래된 이름들. 이 죽음을 정확히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계속해서 유보 되고 여자는 편지를 핑계 삼아 계속 이 삶의 주변을 배회한다.

어떤 죽음은, 나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곳에 없었음을 깨닫게 한다. 이 도시의 매끈함 앞에서 여자가 자꾸만 미끄러지며 세계의 완성에서 탈락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거기 있다. 그저 도시의 배경이었던 고양이가 나의 거리라 말을 하는 그 곳에, 밤도 없고 낮도 없이 유통기한 없는 성공을 과시하는 전광판의 찢겨진 틈 사이로. 모두가 각자의 방식대로 여전히 거기 있다.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찾아 낸 곰 사람처럼. 어쩌면 이것이 여자가 이 도시,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실감 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인지도 모른다.

이 글을 쓰는 내내 유난히 많은 친구들을, 혹은 친구가 될 뻔 했던 이들을 보내야 했다. 사라진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 페이지의 끝에 이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었다. 몇 번을 쓰고 다시 지우고 또 고치고 쓰는 동안, 너머에 있다고 여겼던 친구들은 21페이지에서, 34페이지에서, 불쑥 불쑥 나타나 함께 달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죽은 친구들과 뛰고 헤매며 길을 잃었다. 그 반복 끝에, 이제 그 너머에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있다. 관객. 진짜 거기 계시 줄은 몰랐는데 정말이지 보고는 싶었다고. 자주, 표정을 알 수 없는 당신을 상상했었다고, 당신이 아직 그 곳의 당신이기 전부터. 아주 짧은 찰나라도 이 이야기와 인물들이 당신에게 스치듯 닿을 수 있는 한 순간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밤에도 자신만의 방에 갇혀있을 나의 친구들을, 혹은 친구가 될지도 모를 이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는다. 왜 어떤 밤들은 영영 끝나지 않는지, 왜 어떤 내일은 여전히 도착하지 않은 채 오늘을 반복 할 뿐인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 한다. 그래서 쓴다. 거리에 버려진 전단지처럼 도처에 깔린 우물 속에서, 그 우물로부터 이어지고 이어져 온 '아이'처럼, 아직 읽혀지지 않았을 뿐 여전히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 모든 3, 모든 보리들에게.



연출 동이향

이제 '코비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라고 말문을 여는 일은 날씨 이야기보다 더 흔해졌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이해하고자 애쓰며 지금을 보낸다.

나에게 이 작품은 그 혼란과 닮았다. 예지몽처럼, 도래할 미래에 대한 암시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오래된 흔적처럼 다가왔고, 이걸 꾸는 이가 누군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 꿈이기도 했다.

이 작품 속에서 디지털에 갇혀살고 있는 우리의 감각에 대하여 생각했다.

검고 어두운 화면 너머 끝도 없이 옮겨다니는 우리의 장소들. 그 안으로 도망가기도 했다가 그 안에서 울기도 웃기도 했다가 다시 돌아온 현실에서 이 곳이 어디인지 망연해지곤 하는 감각.

나에게 여자는 텅빈 방에서 홀로 그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이다.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과연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연결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디지털 너머라는 가상의 가상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우울과 서로의 선택들에 대해 어떤 연결을,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작품을 해나가면서 길을 잃을 때가 많았지만 자주 나의 시대와 연극을 생각했다. 연극이 미지가 아닐 때 무엇일수 있겠는가. 이 작품에서 연극이 다시 미지가 되었다. 그리고 더듬더듬 이 미지의 미지로움을 다시 더듬는다. 다시, 삶이 미지다.

연극은 미지다. 그걸 이 작품을 만드는 이들이 함께 누렸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걸 관객이 누리길 원하면서 내내 이걸 함께 했다. 이 시대. 우울과 죽음 사이에 아무 것도 없는 이 황망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애도.



여자

정대진 Jung Daejin

연극

<비추다: 빛을 내는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빛을 보내어 밝게 하다>
<연출의 탄생> <SPACE : 연극> <뉴스페이스 : 연극> <이삿 줄는 여있들>
<오늘의 급식> <안PARK 다시 만난 세계> <HaHaHamlet 하하함릿> 외



우물

김석기 Kim Seokgi

연극

<골목길 느와르-리처드3세를 찾아서> <거의 엘렉트라>
<해와 달에 관한 오래된 기억> <내가장롱롱메롱문열있을때,>
<해님지고 달님안고> <떠도는 땅> <지하철 존재론-춤추듯 춤추지 않는>
<설공찬전> <먼데이5PM> 외



기사, 낙라

김명기 Kim Myeongki

연극

<친절한 에이미 선생님의 하루> <만선>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X의 비극>
<스카펫> <이갈리아의 딸들> <나는 살인자입니다> <산책하는 침략자>
<클라우드 나인> <리처드 3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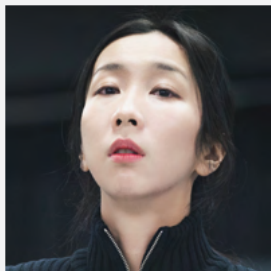


리더, 곰사람

이은정 Lee Eunjeong

연극

<골목길 느와르-리처드3세를 찾아서> <집집: 하우스 소나타> <괴물B>
<와이바이> <아버지들> <지하철 존재론-춤추듯 춤추지 않는> <명왕성에서>
<소년B가 사는 집> <말들의 무덤> 외



고대 엄마

임윤진 Lim Yunjin

연극

<골목길 느와르-리처드3세를 찾아서> <해와 달에 관한 오래된 기억>
<사탄동맹> <1986 임윤진> <아랫것들의 위>
<지하철 존재론-춤추듯 춤추지 않는> <거의 엘렉트라>
<내가장롱롱메롱문열었을때> <떠도는 땅> <벚꽃동산-진실너마> 외



고대 아빠, 아담

안창현 Ahn Changhyun

연극

<문정왕후 윤씨> <골목길 느와르-리처드3세를 찾아서> <사물의 중력>
<맨 끝줄 소년> <여제의 당신이 나를 가로지를 때> <빨>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아니다> <북새통의 겨울이야기> <새로움을 찾아서>
<천국으로 가는 길> 외



보리, 고양이, 부고편지

서지우 Suh Jiwoo

연극

<겨울에 하는 연극> <상처난 자리들> <그 숲의 심연>
<외로운 개, 힘든 사람, 슬픈 고양이>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탐구 영역>
<베토벤 비긴즈> <브레인 컨트롤> <전 인민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외

낭독극

<샌드위치> <다스 오케스터>

작
신해연

Shin Haeyeon

연극
<악어 시> <체액> <얼다섯> 외

전시 겸 퍼포먼스

[이사공] <김토끼의 개념섹스>
[48시 욕망극장 - 괴물이 사는 집] <천지창조 극장> 외

연출
동이향

Dong I-Hyang

연극
<해와 달에 관한 오래된 기억> <떠도는 땅> <암전> <내가장롱롱메롱문열었을 때,> 외

수상

2007 국립극장 창작공모 <해님지고 달님안고> 가작
2014 창작산실 대본공모 우수작 <떠도는 땅>
2020 제7회 윤영선연극상
2020 제14회 차범석희곡상 <간과 강>

드라마투르기
손원정

Sohn Wonjung

연극
연출 <괴물 B> <스탈린에게 보내는 연애편지> <구름 한 가운데> <애들러와 깃> 외

드라마투르기

<골목길 느와르-리처드3세를 찾아서> <명왕성에서> <1984> <템페스트> <생각나는 사람> 외

무대
손호성

Shon Hosung

연극
<해와 달에 관한 오래된 기억> <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아라베스크>
<뼈의 기행> <먼 데서 오는 여자> <과부들> <Green Bench> <남자충동> 외

조형
성미림

Sung Milim

연극
<메이드 인 세운상가> <타자기 치는 남자> <4분 12초>
<어린잎은 나란히> <X의 비극> <마른대지> <이카이노의 눈> 외

의상
김우성

Kim Wooseong

연극
<순교> <태양>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골목길 느와르-리처드3세를 찾아서>
<시련> <파묻힌 아이> <인간이든 신이든> <신의 막내딸 아네모네>
<조치원-새가 이르는 곳> <날아가 버린 새> 외

영상
윤민철

Yoon Minchul

연극
<갈매기> <소년이 그랬다> <자본2>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 <히스토리 보이즈> 외

무용

<슬리핑 뷰티> <비트사피엔스> 외

오페라

<토스카> <라 트라비아타> 외

라이브카메라

김강민

Kim Kangmin

연극

라이브카메라감독 <골목길 느와르-리처드3세를 찾아서 ver.0.7>

<골목길 느와르-리처드3세를 찾아서 ver.1.0>

조연출 <작가, 작품이 되다 - 장 주네> <해와 달에 관한 오래된 기억> <작가>

출연 <지정>

음악

카입

Kayip

연극

<비포 애프터> <그녀를 말해요> <널 위한 날 위한 너> <햄릿> <달콤한 노래>

전시

<Hyundai Nature Observation 2.0>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Carbon Clock> <Emotionscape>

무용

<점> 외

음향

이현석

Lee HyunSeok

연극

<비추다> <유니온> <붉은 낙엽> <보트피플> <여기, 한때, 가가>

<햄버거 먹다가 생각날 이야기> <SPACE:연극> <유리동물원> <악어 시> 외

무용

<흔들> 외

분장

장경숙

Jang Kyungsook

연극

<탈피(脫皮)> <조치원-새가 이르는 곳> <붉은 낙엽> <로테르담>

<바바리맨-킬라이크아이두>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집집: 하우스 쇼나타> <터키행진곡> 외

소리

이소정

Lee Sojung

연극

<환상동화> 외

뮤지컬

<고현,1921> <슈퍼클로젯> 외

오페라

<브람스> 외

조연출

민성오

Min Seong-o

연극

조연출 <해와 달에 관한 오래된 기억>

감정사회학자 김신식

❖ 본 원고는 2021 [창작공감: 작가] 2차 낭독회 작품개발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염된 각본”이라는 용어를 떠올리다

작가님은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우울이 너무 납작하고 매끄러운 서사 아래 단순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저는 김소연 시인이 쓴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에 나오는 “감염된 각본”이라는 용어를 생각했습니다. 김소연 시인이 직접 고안한 본 용어는 가령 외로움에 몸서리치다 금세 외로움을 극복한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급변에 의심을 표하는 데 기인합니다.

먼저 ‘보리의 여섯 번째 죽음’ 파트에서 작가님이 매끄러운 설득력을 의식한 죽음을 무대화한다는 것에 회의감 섞인 의구심을 나타내셨는데 이는 죽음을 향한 감염된 각본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도로 느껴졌습니다. 이를 우울에도 적용해볼 수 있겠지요. 어쩌면 이 피드백을 가능케 한 작가님의 고민, 즉 우울이 너무 납작하고 매끄러운 극복의 서사에 종속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점 또한 우울에 관한 감염된 각본에 탄지를 거는 작가님의 시도겠지요.

그러했을 때 우울이 등장인물을 내내 지켜보고 있다, 등장인물과 함께하고 있다는 기존 언급과 더불어 우울에 대한 매끄러운 해석에 의구심을 갖는 지점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우울에 관한 감염된 각본을 유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간파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아, 저게 우울에 대한 통찰력이구나’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시도라고 할까요.

이 시도에는 극에 맞는 여러 유형이 있겠으나 이제 우울과 관련해 자기 삶을 매력적으로 서사화하는 이는 비단 작가만 해당되는 게 아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일반인의 에세이가 증가하는 가운데 풍족해진 ‘우울의 서사’가 간혹 ‘우울 하면 이런 이야기 혹은 저런 구성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데’, 하는 강박에 일반인이 몹시 시달리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대목을 상상했습니다.

언컨택트·화면·우울

개인적으로 작가님의 디테일을 체험한 대목은 전단지, 부고 편지로 대변되는 지면, tv, 전광판, 모니터, 유튜브 등으로 대변되는 화면이 일관되게 등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리더와 여자의 대화에서 여자가 보리를 보았냐고 물어보니 리더가 “조회수”를 언급하는 장면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를 통해 조심스럽지만 작가님은 코로나 체제 아래 이전 시대에 비해 화면으로 감각하는 비중이 늘어난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을 조망하는 것 아닐까 곱씹어보았습니다. 이런 맥락 아래 이 역시 너무 선명하게 재현되면 캐릭터들의 감정선이 단순하게 인식될 수 있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화면이 우울과 관계 맺는 지점을 좀 더 부각시켜도 되지 않을까 상상해보았습니다.

사회학 연구자 후지타 나오야는 『좀비 사회학』에서 데이터화된 현대인의 신체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그는 특히 데이터로 재구성된 개인의 정체성을 논하며 “데이터 더블data double”이란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일례로 쿠팡에서 내가 특정한 물건을 구매하면 이를 데이터로 추려낸 쿠팡 시스템은 다음 구매 시 제 구매 취향이 들어간 유사 목록을 제시해주어 저라는 개인의 소비 패턴과 개인의 삶을 재정의 내리지요.

극 속으로 돌아가 보면 리더가 알고리즘이 사회 현실을 지배하고 있음을 피력하는데, 리더의 입을 빌려 화면을 통해 접하는 우울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처리되어 우리 눈앞에 특정 데이터로 제시되고 있는지 설파하는 장면, 조심스레 상상해보았습니다.

화면-데이터-우울이란 감정 이 3각의 구도 가운데 화면에 접속해 우울에 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나’라는 존재에게 가중되는 우울감, 즉 우울에 대한 정보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더블이란 정체성이 덧입혀진 우리에게 가중되는 우울감을 상상해보았다고 할까요.



제작일지 | 밤과 밤사이를 거닐며 마침내 이곳에 도착한 당신에게



우울하다

‘우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를 향할까?’라는 신해연 작가의 펜촉 끝에서 탄생한 <밤의 사막 너머>.

그렇다면, 우울하다는 것은 뭘까. 지구 저 땅 끝까지 대책 없이 가라앉는 기분일까. 아니면, 수면 아래에 잠식하며 적막함에 사로잡히는 기분일까. 아니, 어쩌면 ‘우울’은 깊이 아래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 무수한 문을 열고 또 열며 자신만의 방을 찾아 나서는 건 아닐까.

‘우울’이라는 감정과 기분이 가진 클리셰에서 조금 벗어나보자. 슬픔, 불안, 자기연민이 아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현실을 일깨우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또 다른 감각으로서 접근해보자.

‘우울’이라는 녀석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서!



빈 방에 있다

“디지털 세계와 현실의 경계가 많이 흐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디지털 세계가 감각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공허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동이향 연출가

가상과 현실의 경계, 그 속에 수많은 공간을 걷고 또 거닐어도 결국 도착한 곳은 이곳 나의 방, 나의 우주. 우리 모두 각자의 방, 각자의 방 안에서 가장 자유롭지 않은가! <밤의 사막 너머>는 빈 방에서 시작되어 빈 방에서 끝나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도착하다

“사막이 소멸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소멸이 꼭 죽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서지우 배우

여자는 걷고 또 걷는다. 그 다다름의 끝은 어디일까? 미처 알지 못하는 세계일까,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일까. 여자가 걷고 걸어서 도착한 사막은 어쩌면 언제 어디서든 함께했던 우울과도 멀어지는 곳은 아닐까! 서로 다른 시간대, 다른 길 위에 선 이들. 그렇게 여자는 걷고 또 걸어 무수한 도시의 방들을 지나 사막에 다다른다.



마주하다

“어쩌면, 보리의 죽음은 그 누구의 죽음이 아닌 나의 죽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실감하는 장면에서 나와 타인의 접점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죽음일 수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의 죽음을 내 것처럼 실감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신혜연 작가

거리를 걷고 또 걷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여자가 있다. 손에는 부고편지 한 통을 쥐고 여러 도시를 오가며,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지금은 얼굴조차 희미한 나의 여자친구 '보리'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가만 보니 이 거리엔 참 많은 것들이 있다. 모든 감각을 달아도 느껴지는 분주함도 그 틈으로 나지막이 속삭이는 적막함도 여자가 거닐며 만나는 인물은 어디에도 없지만 어딘가에는 있을법한 인물들이다. 원숭이탈을 쓴 아르바이트생, 전광판에 갇힌 바둑기사, 지천명의 고양이, 단단계 회사 리더를.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자신을 만난다.



사라지다

연극은 사라지기 위해 무대에 존재하는 것. 완벽히 나타났다 더욱 완벽히 사라지기 위해 존재했던 수많은 이들의 낮과 밤은 이제 관객들을 향한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도 이곳 극장에 도착한 당신들을 위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출연

여자 **정대연**
우울 **김석기**
기사, 낙타 **김명기**
리더, 곰사람 **이은정**
고대 엄마 **임윤진**
고대 아빠, 아담 **안창현**
보리, 고양이, 부고편지 **서지우**

스태프

작 **신해연**
연출 **동이향**

드라마투르기 **손원정**
무대 **손호성**
조명 **성미림**
의상 **김우성**
영상 **윤민철**
라이브카메라 **김강민**
음악 **카입**
음향 **이현석**
분장 **장경숙**
소품 **이소정**
조연출 **민성오**

무대감독 **김태연**
무대제작감독 **이승수**
조명감독·오퍼레이터 **임수연**
음향감독·오퍼레이터 **장도희**
의상감독 **신원선**
무대진행 **한우정**
의상진행 **신은혜**
음향RF **오세나**
영상오퍼레이터 **서조은**

무대제작 **풀굿**. 대표 **홍지은**
이상수 박봉수 김상복 김종규
정진수 홍지웅 이창훈 선 훈
김홍윤 박민정 고인하
의상제작 **KOSTUME**. 대표 **김미나**
소품제작 **하다**. 대표 **윤미연**
최소리 김정란
조명프로그래머 **최인수**

조명팀 **정주연 김소현 정하영 유보민**

정우원 은지연

음향팀 **오세나 최상석**
영상팀 **서조은 윤유리**

홍보·마케팅 총괄 **박보영**

홍보 **이정현 김태은**

마케팅 **이현아**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청년인턴 **김한경 정진영**

스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9기 **박예지 이예본 임도희**

최나윤 황수빈 황지연

홍보사진 **만나 사진작업실**. 대표 **김신중**

연습·공연사진 **이강물**

공연영상 **올하우스**. 대표 **조선영**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 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불땀**. 대표 **김은총**

옥외광고 **영기획**. 대표 **서성원**

홍보물 인쇄 **인타임**. 대표 **김종민**

티켓 **김보배**

대표 안내원 **김신혜 손주형 양혜선 이승희**

하우스·접근성매니저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임지은 이민경 송 솔 김지수 임지현**

고계령 박소담 손유희 문채림 연희원

조세찬 최민아 한세린 고혜진 김연정

김지이 윤예진

프로그램북 디자인 **하이버 스튜디오 HYBR.**

대표 **권혁배, 윤서진**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 대표 **신동복**

[창작공간: 작가] 운영위원 **전영지**

작품개발 총괄 **지민주**

작품개발 프로듀서 **한나래**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박소영**

제작진행 **황고은**

제작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스마트폰의 인터넷/카메라
앱 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하세요.



재단법인 국립극단

(재)국립극단 이사회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김상헌 이사장** |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이사** | 연극배우 **길해연 이사**
극작 및 평론가 **김명화 이사** | 연출가 **심재찬 이사** | 고려대학교 교수 **이상우 이사** | 건국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정재승 이사**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윤성천 이사** |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김혁수 감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팀장 **신민희** | 예산·회계·세무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 시설·용역·공사 **정병옥** | 인사·복무·복리후생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이민희** |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주현우** |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김시내**

공연기획팀

팀장 **김옥경** | 프로듀서 **정채영 이정민 김훈일 박소영 윤정민 김정연** |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김수현 박소영**
하우스·접근성매니저 **김나래 이기쁨**

홍보마케팅팀

팀장 **박보영** | 홍보 **최윤영 김태은 이정현** | 마케팅 **이현아 오지수 이승이 변정원 조영채**
티켓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 청년인턴 **김한경 정진영**

무대기술팀

팀장 **정광호** | 무대감독 **나혜민 김정빈 김태연** | 제작감독 **홍영진 이승수 경은주**
음향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 조명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 의상감독 **박지수** | 청년인턴 **이영탁 서동민**

작품개발팀

팀장 **정웅성** | 작품개발·학술 **한나래 조유림** | 아카이브 **이지연** | 청년인턴 **김가은**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장 **김성제** | 프로듀서·국제교류 **김미선** | 연구개발 **손준형 정한솔** | 공연제작·사업기획 **박성연** | 청년인턴 **이승하**

2022 시즌단원

강해진 강현우 권은혜 김광덕 김다환 김명기 김세환 김수량 김시영 김예은 문예주
박용수 박용우 서지우 신사랑 안창현 윤성원 이동준 이은정 이혜미 정대진 정슬기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최대 할인율로 예약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 할인(전등급, 공연별 4매한)
- 제작 공연 우선 예약
- 온라인 극장 1개 작품
1회 무료 관람권(쿠폰) 제공

연극인회원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급, 본인 1매 한)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약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2022년



· 강해진 ·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스카펄>



· 강현우 ·

<세인트 죠운>



· 김세환 ·

<엔젤스 인 아메리카>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 김수량 ·

[창작공감: 작가]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세인트 죠운>



· 김시영 ·

[창작공감: 작가]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앨리스 인 베드>



· 김예은 ·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스카펄>

시즌 단원이



· 박용우 ·

<엔젤스 인 아메리카>
<채식주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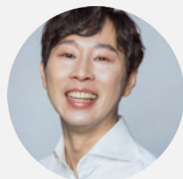
· 서지우 ·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 안창현 ·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스카펄>



· 윤성원 ·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세인트 죠운>



• 권은혜 •

〈엔젤스 인 아메리카〉
〈엘리스 인 베드〉



• 김광덕 •

[창작공감: 작가]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엘리스 인 베드〉



• 김다현 •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세인트 죠운〉



• 김명기 •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스카펄〉



• 문은주 •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스카펄〉



• 박용수 •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세인트 죠운〉

국립 극단과



• 이혜미 •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스카펄〉



• 정대진 •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 정슬기 •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 신사랑 •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엘리스 인 베드〉



• 이동준 •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세인트 죠운〉



• 이은정 •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함께 합니다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작. 김도영

연출. 신재훈

무대 남경식
조명 노명준
의상 이훈진
소품 남해연
분장 장경숙
움직임 이재영
음악·음향 이송호
영상 김성하

출연
강해진 김추빈
남재국 문예주
박세정 박옥출
박용수 윤성원
윤일식 윤현길
이동준 이은지
이혜미

2022. 3. 30. - 4. 10.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극단

푸른하늘

국립극단 1644-2003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너는 그 사막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